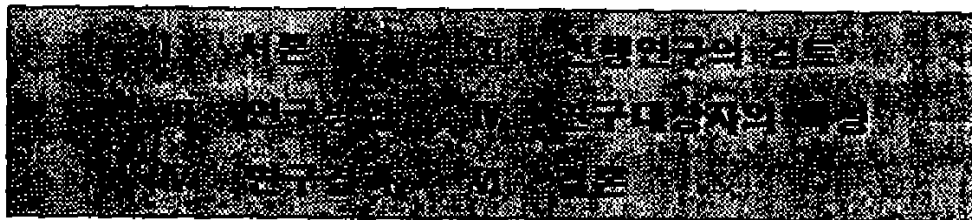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

박인선*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입양실무에서 가장 중시한 가치는 입양삼자¹⁾ 모두의 비밀보장이었다. 비밀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입양, 즉 비밀입양에서 입양이란 아동과 양부모와의 결연만을 의미한다. 비밀입양에서는 아동이 친가정으로 부터 입양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연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친가정으로 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고, 입양가정이라는 새로운 가정에서 친자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결연이후 입양삼자에게 미치는 입양의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밀입양인식하의 입양실무에서는, 입양가정에서 태어난 입양인²⁾에게 양부모이외의 다른 부모는 있을 수

* 대한사회복지회 아동복지부장

1) 입양삼자란 아동, 친부모, 그리고 양부모를 칭한다.

2) 본 연구에서 입양인이란 미성년자인 입양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입양되어 성인이 된자를 칭한다.

없기 때문에, 뿌리찾기³⁾를 시도하는 입양인을 소수의 일탈행위자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다가 구미에서는 1970년대부터 뿌리찾기시도자가 비시도자보다 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입양으로 인한 것이어서, 뿌리찾기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뿌리찾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뿌리찾기시도자가 비시도자보다 더 문제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뿌리찾기를 일부 입양인들의 일탈행위나 문제해결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구로 본다.

아직도 비밀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한국에서는 뿌리찾기는 물론 입양이후의 경험이나 성과에 대한 연구도 거의 발표된 바가 없다⁴⁾.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초부터 해외입양아/또는 입양인들이 서신이나, 모국방문을 통해 뿌리찾기와 관련된 입양후서비스를 한국의 입양기관에 요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입양실무가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경험적 과학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입양인들은 종종 입양기관의 서비스에 실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양기관의 서비스에 실망한 해외입양인들은 뿌리찾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입양기관 이외의 자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삼자의 비밀보장권리가 필요이상으로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의 입양실무가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경험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뿌리찾기에 대한 철학적 법적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3) 본 연구에서 뿌리찾기(Search)란 입양아 또는 입양인들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신배경정보나 입양사유 또는 출신문화들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자 하거나, 친부모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4)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입양후 3-4개월된 양모들을 대상으로 한 박 은선(1980)의 석사학위논문이 있고,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천 경수(1983)와 허 남순(1984)이 발표한 글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들중에서 뿌리찾기정도별로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둘째, 연구대상자의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중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뿌리찾기정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셋째, 뿌리찾기 관심자 또는 시도자들이 문제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자존심이 뿌리찾기정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인종내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인종간입양이기 때문에, 뿌리찾기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거나,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은 소수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Raynor(1980)의 연구에서는 78%의 입양인들이 친부모와 연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 Triseliotis(1984)의 연구에서는 실제 뿌리찾기율이 영국의 경우 0.3%이고, 스코트랜드의 경우에는 0.7%에 불과하여 입양인들이 평생에 걸쳐 뿌리찾기할 가능성을 고려할때, 전체 입양인의 21% 정도만이 뿌리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⁶⁾. Feigelman & Silverman(1983)의 연구에서는 18%

5) Raynor, Lois, *The Adopted Child Comes of Age*, London:George Allen & Unwin, 1980, p.100:

160명의 양부모와 105명의 입양인들을 처음부터 입양한 경우와 위탁후에 입양한 경우의 입양의 경험과 성과를 비교한 연구

정도만이 뿌리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었고⁷⁾, Lydens(1988)의 연구에서는 뿌리찾기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처럼 실제로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자들은 각자 그들의 뿌리찾기 관점을 입증하고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또는 뿌리찾기 시도자들이 비시도자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속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입양인의 입양특성, 양부모와의 관계, 입양가정내의 입양대화 분위기, 입양경험과 입양인식, 친부모에 대한 환상정도,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인과 양부모의 견해, 그리고 입양인의 자아개념이나 자존심등과 같은 변수들이 거론되고 있다.

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뿌리찾기 시도자들이 대부분 성인기초기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Triseliotis(1973)⁹⁾, Sorosky, et.al.(1984)¹⁰⁾, Simpson, et.al.(1981)¹¹⁾, Kowall

6) Triseliotis, John, "Obtaining Birth Certificates", Adoption: Essays in Social Policy, Law, and Sociology, Philip Bean ed.,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84, p.48.

7) Feigelman W. & A.R.Silverman, Chosen Children: New Patterns of Adoptive Relationships, NY:Praeger, 1983, pp.211-12:
미국의 양부모조직을 통하여 인종내입양가정(70)과 인종간 입양가정(260)의 양부모와 사춘기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성과를 인종별로 비교한 연구. 이중 55가정이 한국아동을 입양한 가정이었음

8) Lydens, Lois, A Longitudinal Study of Crosscultural Adoption: Identity Development Among Asian Adoptees at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IL, 1988, pp.83-85:
Kim(1977)의 연구대상자들중 10년후 추적 가능했던 101명의 한국해외 입양인과 양부모를 대상으로한 성인기초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9) Triseliotis, John, In Search of Origins: The Experiences of Adopted Peop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1969년 11월 부터 1970년 11월까지 스코트랜드 에딘버러 호적계에서 원래출생증명서를 받은 70명의 입양인들을 단순히 정보만을 원하는 사람

& Schilling(1985)¹²⁾등 뿌리찾기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28세부터 35세 사이에 속한다. Sorosky, et.al.(1984)은 연령이외에 임신, 출산, 취직, 또는 양부모들의 사망등 일생의 중요한 사건들의 경험이 뿌리찾기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rodzinsky, et.al.(1992)¹³⁾는 임신, 출산, 취직, 또는 양부모들의 사망등의 중요한 사건들도 사실은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들 사건들은 성인기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 사건들이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초기라는 발달단계, 즉 연령이 뿌리찾기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Raynor(1980)는 양부모 특히 양모와 입양인의 연령차이가 40이상인 경우 입양만족도가 낮아지고, 이것은 뿌리찾기 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ffee & Fanshel(1970)¹⁴⁾은 양부모가

(26명)과 친모와의 만남도 원하는 사람(42명)의 두집단으로 나누고,

비저시적 면접을 통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

10) Sorosky, Arthur, et.al., *The Adoption Triangle*, 2nd ed. NY: Doubleday, 1984:

Southern CA지역에서 신문광고를 통하여 표집한 50명의 친모와 재회한 입양인들을 1976년을 전후하여 심층면접한 연구

11) Simpson, Mark, et.al., "Adoptees in Search of Their Past: Policy Induced Strain on Adoptive Families and Birth Parents", *Family Relation*, Vol.30, No.3, July, 1981, pp.427-34:

1977년 6월부터 78년 12월까지 미네소타주정부에 뿌리찾기를 요청한 41명을 대상으로 한 뿌리찾기 동기에 관한 연구

12) Kowall, Katherine & Karen Schilling, "Adoption Through the Eyes of Adult Adopte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5, No.3, July, 1985, pp.354-62:

1982년과 83년에 사회기관과 뿌리찾기자조단체를 찾은 110명을 대상으로 한 뿌리찾기동기에 관한 연구

13) Brodzinsky, D.M., et.al.,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arch*, NY: Doubleday, 1992

14) Jaffee, Benson and David Fanshel, *How They Fared in Adoption: A Follow-up Stud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불임인 경우 입양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Feigelman & Silverman(1983)은 임신이 가능하고 친자를 가지고 있는 양부모가 입양아의 뿌리찾기 관심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인 것 같다고 하였다.

입양인의 입양특성: 입양당시의 연령에 대하여, Lydens(1988)는 해외로 입양된 한국사람들의 대다수가 뿌리찾기에 관심이 없으나, 6세이후에 입양된 사람들은 1세이전에 입양된 사람들 보다 뿌리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Triseliotis(1973)는 1세이후에 입양된 경우, 그리고 Aumend & Barrett(1984)¹⁵⁾는 6개월이후에 입양된 경우 뿌리찾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한다고 하였다. 입양사실의 인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Triseliotis(1973), Loper(1976)¹⁶⁾, Sorosky, et.al.(1984), 그리고 Aumend & Barrett(1984)는, 인지시기가 6세이후 늦으면 늦을수록, 그리고 인지방법이 제삼자를 통한 것이거나, 충격적일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한다고 하였다. Sobol & Cardiff(1983)¹⁷⁾, Feigelman & Silverman(1983), 그리고 Kowall &

1931년부터 40년사이에 NY지역에서 3세미만의 나이로 입양된 100명의 입양인과 그들의 양부모를 면접한 입양성과에 관한 연구

15) Aumend, Sue & Marjie Barrett,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Adoption: A Comparison of Searching and Nonsearching Adult Adoptees", Child Welfare, Vol.63, No.3, May-June, 1984, pp.251-59:

120명의 연구대상을 뿌리찾기시도자(71명)와 비시도자(49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집단비교한 연구

16) Loper, Nan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sonality Factors and Social Histories of Three Groups of Adopted Adults,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1976:

대학신문광고후의 전화 면접을 통해 표집한 60명의 입양인을 뿌리찾기 무관심집단, 소극적 관심집단, 적극적 관심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집단비교한 연구

17) Sobol, Michael & Jeanette Cardiff, "A Socio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Adult Adoptee's Search for Birth Parents", Family Relations, Vol.32, Oct., 1983, pp.477-83:

신문과 입양인자조단체를 통해 표집한 120명을 뿌리찾기 관심자(90%)와 무관심자(10%)로 구분하고 이들의 자아개념과 사회적응도를 비교한 연구

Schilling(1985)는 입양사실의 인지시기는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며, Steinberg(1991)¹⁸⁾도 입양사실의 인지시거나 인지방법은 입양경험에는 영향을 미치나, 뿌리찾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친부모정보의 양과 질에 관하여, Triseliotis(1973), Loper(1976), Sorosky와 동료들(1984)에 의하면, 뿌리찾기 시도자들은 출신배경 정보에 대해 거의 아는바가 없는데, 정보의 양보다도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고, Raynor(1980)는 정보의 양이나 질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중요하여, 정보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뿌리찾기정도가 커진다고 했다. 반면에, Aumend & Barrett(1984), 그리고 Sobol & Cardiff(1983)는 정보가 있을수록 뿌리찾기를 더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Haag(1989)¹⁹⁾는 친부모에 관한 정보의 양은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부모와의 관계: Triseliotis(1973), Loper(1976), Raynor(1980), 그리고 Sobol & Cardiff(1983)는 양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뿌리찾기에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Simpson, et.al.(1981)과 Rigg(1989)²⁰⁾, 그리

18) Steinberg, Anne Goldberg, "Adult Adoptees Who Search for Their Birth Parents: A Predictive Path Mode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1,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52, No.8, Feb. 1992, p.2868-A:

입양인 자조집단의 회원 137명의 입양인들을 뿌리찾기시도자와 비시도자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뿌리찾기시도여부를 예측해보고자한 연구

19) Haag, Michael, Identity and the Search for Origins: A Study of Adult Adopte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Cruz, 1989:

신문광고를 통해 표집한 입양인을 친모재회자(20명)와 비시도자(20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 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20) Riggs, Rosalyn, The Relationship of Birth Parent Search to Interpersonal Style, Ego Identity Achievement and Self-Concept in Adult Adoptees,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Arts and Scienc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9:

다양한 광고를 통해 표집한 80명의 입양인을 뿌리찾기비시도자(25명).

고 Miller-Havens(1990)²¹⁾은 뿌리찾기시도자들이 양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부모와의 관계는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입양대화 분위기: Triseliotis(1973)는 양부모는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며, 입양사실을 입양아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도 배경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비밀고수나 회피는 단지 입양인들로 하여금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할 뿐이고, 동시에 입양인과 양부모와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Schechter & Bertocci(1990)²²⁾도 뿌리찾기와 관련된 12개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시도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입양가정내에서의 입양에 관한 대화에 입양인들이 불만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양경험: Simpson, et.al.(1981), Sorosky, et.al.(1984), Riggs(1989), Kowall & Schilling(1985), 그리고 Miller-Havens(1990)은 아동기 입양경험은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Triseliotis(1973), Loper(1976), Sobol & Cardiff(1983), 그리고 Aumend & Barrett(1984)는 아동기 입양경험은 뿌리찾기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Loper(1976)는 입양경험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뿌리찾기 무관심집단에, 입양경험이 보통이었던 사람들은 소극적 뿌리찾기집단에, 그리고 입양경험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적극적 뿌리찾기집단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뿌리찾기란 개인의 아동기 초기 이후의 입양경험에 대한 수년간

시도중인자(38명), 시도를 완료한자(26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대인 관계성향과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

21) Miller-Havens, Susan, Connections and Disconnections: The Birth Origin Fantasies of Adopted Women Who Search,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Harvard University, 1990:

뿌리찾기자조단체 회원인 84명의 여성을 뿌리찾기 시도중인자와 뿌리찾기 완료자로 구분하고 친모에 대한 환상과 뿌리찾기의 관계를 연구

22) Schechter, Marshall & Doris Bertocci, "The Meaning of the Search", The Psychology of Adoption, David M. Brodzinsky & Marshall Schechter, 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62-90

의 만족도로 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입양인식: 양부모됨은 친부모됨과 다르고 좀 더 어렵다는 입양인식은 Kirk²³⁾에 의해 1960년대초에 발표된 후에 구미의 입양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수용되었다. 이에비해 입양인은 입양됨을 인지하고 이해해나가는 입양인만의 독특한 발달과업이 있고,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비입양인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다시말해서 입양인은 비입양인과 다르다고하는 인식의 수용은 아주 최근에 Brodzinsky등(1992)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입양인식이다. Brodzinsky와 동료(1992)들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입양인의 입양인식은 하나의 발달과정이며, 그 결과로 뿌리찾기관심이 연령과 함께 증가되고, 성인기 초기에 이르면 뿌리찾기를 시도하게 된다.

친부모 환상: Kowall & Schilling(1985)은 연구대상자중 19%가 아동기에 25%가 사춘기에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Miller-Havens(1990)는 생후 2주미만에 입양된 경우는 친부모에 대한 환상이 적으나, 대부분의 입양인들(80%)이 입양경험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춘기 때까지 그들의 연결감을 갖기위해 계속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한다고 하였으며, 친부모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환상을 한다고 하였다.

뿌리찾기 견해: 양부모의 뿌리찾기 견해에 대하여, Triseliotis (1973), Loper(1976), Raynor(1980), 그리고 Sorosky, et.al. (1984)은 양부모들이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대해 상당한 위협을 받거나 두려워한다고 했다. Smith & Miroff(1987)²⁴⁾은 원래출생증명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입양삼자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친부모중의 95%와 입양인의 80%가 원래출생증명서의 공개에 찬성한 반면에, 양부모는 60%만이 찬성하여,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대해 양부모는 친부모나 입양인보다 훨씬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eissinger(1984)²⁵⁾와 Feigelman & Silverman(1983)의 연구에 의하

23) Kirk, H.D., Shared Fate: A Theory and Method of Adoptive Kinships, 2nd ed. WA: Ben-Simon Publication, 1984

24) Smith, Jerome & Franklin I. Miroff(1987), You're Our Child: The Adoption Experience, NY: Madison Books, 1987

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뿌리찾기에 대해 상당히 지지적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뿌리찾기에 대해 꺼려한다 했다.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자녀가 어릴수록 최근에 입양한 것을 의미하므로, 입양당시부터 아동의 뿌리찾기에 대해 어느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나이가 뿌리찾기를 시도할 때가 가까울수록 뿌리찾기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입양인의 자존심 또는 자아개념: 구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거나 시도하는 입양인들이 소수 문제있는 입양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있어왔다. 뿌리찾기를 일탈행위로 보는 일탈행위론적 관점은 오랫동안 입양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뿌리찾기에 무관심한자들이 더욱 행복하고, 친모와 재회한 입양인과 재회를 앞둔 입양인을 비교하였을 때 자아개념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Aumend & Barrett(1984)의 연구는 일탈행위론적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뿌리찾기시도자와 비시도자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뿌리찾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해결론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뿌리찾기시도자일수록 자아상이나, 자아개념, 자존심이 보다 빈약하다는 Triseliotis(1973), Sorosky와 동료들(1984), Sobol & Cardiff(1983)이 이에 속하며, 소극적 관심자가 적극적 관심자보다 긴장이나 걱정이 더 많기는 하지만, 무관심자가 더 낙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Loper(1976)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뿌리찾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본다. 이들과 비교해볼 때 뿌리찾기시도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Steinberg(1991)나, Simpson, et.al.(1981)과 Kowall & Schilling(1985), Haims & Timms (1985)²⁵⁾, Haag(1989), Riggs(1989), 그리고 Brodzinsky

25) Geissinger, Shirley, "Adoptive Parents' Attitude Toward Open Birth Record", Family Relations, Oct. 1984, pp.579-85

26) Halmes, Erica & Noel Timms, Adoption, Identity and Social Policy: The Search for Distant Relatives, Vermont: Gower Publishing Company, 1985:

와 et.al.(1992)는 자존심이나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만이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거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입양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해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입양인들의 보편적 욕구로 본다.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뿌리찾기 관련 변수들을 정리해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행연구자간에 일치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중 어떤 변수들이 뿌리찾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제5장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표집방법: 본 연구자는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양인들의 뿌리찾기정도가 보다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뿌리찾기 관심자나 시도자의 수가 소수인 것으로 발표한 선행연구들은 Triseliotis(197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부모를 통해 입양인을 연락한 경우였다. 이런 표집방법은 입양인이 그들의 뿌리찾기정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에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양인들로 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snowball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1993년 4월과 6월에 미국의 미네소타와 미시간에서 3차례의 한국식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46명의 입양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이 그자리에서 작성한 질문지를 회수받았다. 이들을 기점으로 하여 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을 통하여 1993년 8월 말까지 주로 미네소타, 미시간 그리고 워싱턴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영국에서 뿌리찾기 상담을 요청한 45명의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뿌리찾기정도의 변화 추이를 면접을 통해 확인한 연구. 그 결과 적극적시도자와 소극적시도자가 특성상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뿌리찾기정도가 변한다 함

주에서 84명의 입양인들로 부터 질문지를 우편으로 회수받았다. 이외에 1명은 미네소타대학의 신문광고를 보고 연구에 참가하여 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주었다. 이들 총 131명중 7명이 조사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중에서 친모와의 만남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5명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7명이 응답하지 않아 최종 연구대상자는 112명이 되었다.

연구대상: 본연구자는 선행연구들간에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불일치를 보이는 이유는 선행연구자들이 뿌리찾기비시도자를 단순히 뿌리찾기무관심자로 다루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뿌리찾기 정도를 친모와의 만남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집단(집단1)과 친모와의 만남에 관심은 있지만 시도는 하지 않은 관심집단(집단2), 그리고 친모와의 만남에 관심이 있고 현재 시도중이거나 또는 이미 시도 해본 시도 집단(집단3)등 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결과 본연구대상자의 26.8%(30명)이 집단1에, 40.2%(45명)이 집단2에, 그리고 33.0%(37명)이 집단3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3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본 연구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대부분 5점척도의 구조적질문지로 만들어졌다. 단지 입양인의 자존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 10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질문지내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결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분석가능한 문항들의 Communality가 최하 0.45980, 최고 0.98252로 모두 0.4이상이었고, 항목별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최하 0.5476, 최고 0.9941로 모두 0.5이상이었으므로, 본 연구질문지내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믿을만한 수준임이 검증되었다.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빈도를 사용하였다. 3개 집단으로 구분된 뿌리찾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가 5점 척도를 이용한 경우이거나, 연령과 같이 비율변수일 때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변수 역시 명목 변수일 때에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 분석시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킨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Duncan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뿌리찾기가 입양인의 발달과업이라는 가설이 검증된 바있고²⁷⁾,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뿌리찾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종속변수가 메트릭 자료인 경우에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가 명목변수일 때에는 연령을 10대 후반(18-19세: 25.9%), 20대 초반(20-24세: 48.2%), 20대 후반이후(25세 이상: 25.9%)로 명목화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도는 0.05수준으로 하였다.

IV.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18세부터 38세까지 였으며, 평균연령은 22.9세였다. 이들은 대부분 추정된 생년월일(62.5%)을 갖고있고, 여성(67.0%)이며, 평균 3명 정도의 형제가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아직 미혼(32.1%)으로, 과반수 이상이 대학생(55.3%)이며, 많은 수가 양부모와 동거(48.2%)하고 있었고, 개신교(47.3%)를 믿었다.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양부모는 2명의 양부를 제외한 모두가 백인이었다. 양부와 양모의 평균 연령은 각각 55.6세와 53.3세였고, 입양인과 양부 또는 양모와의 연령차이는 각각 32.9세와 30.5세

27) 박 인선,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 60-66

였다. 과반수이상이 개신교신자(양부: 52.7%, 양모: 60.7%)이며, 대졸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양부: 58.1%, 양모: 55.8%)하고 있었고, 전문직 또는 행정직에 근무(양부: 68.9%, 양모: 58.8%)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입양당시의 결혼관계를 지속(77.7%)하고 있었고, 친자가 있는 양부모도 많았다(48.6%).

연구대상자들의 입양특성: 연구대상자중 1세미만에 입양된 사람이 겨우 25.0%에 불과해서, 입양당시 연령이 비교적 높았다. 이들은 입양아라는 사실과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양부모와의 인종적 차이를 5세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사실과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양부모의 설명을 통해 인지(각각 60.4%와 62.5%)한 반면에, 양부모와의 인종적 차이는 대부분 스스로 인지(66.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5.0%였으나, 친부나 친모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각각 12.1%와 26.6%). 알고있는 정보의 양을 보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평균 2.0개, 친부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0.7개, 친모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1.1개 정도로, 알고있는 정보의 양도 매우 적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1975년 이전에 태어난 한국해외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Kim & Reid(1969)²⁸⁾, Norgaard(1971)²⁹⁾, Guibault(1972)³⁰⁾, 그리고 Kim(1977, 1978)³¹⁾의 연구대상자들과 비교해보면, 성비, 입양당시의 연

28) Kim, Hi Taik and elain Reid(1970), "After a Long Journey", Theses of Master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Minnesota, The Unbroken Circle, Betty Cramer ed., MN: Ours, 1975, pp.306-427

29) Norggard, howard(1973), "The Placement and Adjustment of Children from Korea in Minnesota Schools", op.cit., pp.445-54

30) Guibult, Claude & Jean(1972), "A Descriptive Study of the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Abstract of a Study, op. cit., pp.428-44

31) Kim, Dong Soo, "How They Fared in American Homes: A Follow-Up Study of Adopted Korean Children", Children Today, Vol.6, No.2, Mar-Apr, 1977, pp.2-6

_____, "Issues in Transracial and Transcultural Adoption",

령, 양부모의 불임비율, 그리고 형제수등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구미의 인종내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대상자들과는 여러가지점에서 다르다. 구미의 인종내 입양인들의 경우는 모두 정확한 생년월일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원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은 추정된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불임인 경우가 많고, 두번째 입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Triseliotis(1973)의 연구대상자중 53%가 그리고 Sorosky와 동료들(1984)의 연구대상자중 60%가 독자로 성장한데 반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중 독자는 6.4%에 불과했으며, 48.6%의 양부모들에게 친자가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입양당시 연령이 많다고 할 때에는 Triseliotis(1973)와 Raynor(1980)의 경우에는 1세 이상을 Aumend & Barrett(1984)의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상을 의미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겨우 6.5%에 불과한 반면에, 5세 이상의 연령에 입양된 사람이 27.7%나 되는 등, 입양당시 연령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만의 또 다른 특성에는 입양사실의 인지 시기와 방법이 있다. 선행연구의 인종내 입양인들과는 달리,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입양 사실을 양부모로부터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와의 인종적 차이는 양부모가 말해주기 전에 입양인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뿌리찾기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에서 연령과 뿌리찾기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뿌리찾기집단별 평균연령

은 집단1과 집단2의 평균 연령이 각각 21.1세와 21.4세였고, 집단3의 평균 연령은 26.2세였으며, F 유의도가 0.0000으로 뿌리찾기 집단간의 연령의 차이는 대단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뿌리찾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년월일의 추정여부, 성, 인종, 직업, 그리고 종교는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여부, 거주형태, 자녀유무, 학력, 결혼여부는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통제후에는 이들 변수들과 뿌리찾기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사라졌다. 즉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중에서는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뿌리찾기와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연령	집단간	2	588.6259	294.3130	15.9026	.0000
	집단내	109	2017.2937	18.5073		
	Total	111	2605.9196			
(집단1: 21.1333, 집단2: 21.4000, 집단3: 26.1622, 계: 22.9018)						

본 연구의 결과 집단3의 평균연령이 선행연구에서 보다 약간 낮기는 하나, 연령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성은 뿌리찾기와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것이 인종간 입양의 특성일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는, 대개 first name을 쓰는데, 주위사람들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대개 인종과 관계없이 서구식 first name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로 입양이라는 사실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주위 환경의 범주가 넓어지며, 주로 family name을 사용하게 된다. 구미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을 하는 경우 남자의 family name을 따르기 때문에, 여자가

서구식 family name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있으나, 남자가 서구식 family name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것이 입양된 남성들의 뿌리찾기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뿌리찾기의 관계

교차분석결과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에서 양부와 양모의 학력, 양부와 양모의 직업, 양모의 종교, 양부모의 결혼관계, 양부모의 친자유무등 대다수의 변수들은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양부의 종교만이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통제후에는 상호관련성이 사라졌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양부모와 연구대상자간의 연령차이는 뿌리찾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양부 및 양모의 연령은 뿌리찾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을 통제하자 양부모의 연령도 더이상 뿌리찾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뿌리찾기와 유의미한 변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모와 입양인 사이의 연령차이와 양부모의 불임여부가 뿌리찾기와 유의미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아마도 인종간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불임여부도 비밀로 할 수 없고, 입양아를 친자인 척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자 하는 긴장으로 부터 양부모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3. 연구대상자들의 입양특성과 뿌리찾기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입양특성들 중에서, 입양당시의 연령, 입양사실의 최초 인지방법, 한국에서 온 사실의 최초 인지방법, 자기자신의 배경정보유무는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양사실의 최초 인지연령과 양부모와의 인종적 차이의 최초 인지연령도 뿌리찾기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부모와의 인종적 차이의 최초 인지방법, 친부정보의 유무,

친모정보의 유무는 뿌리찾기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온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연령과 친부정보의 양, 그리고 친모정보의 양은 뿌리찾기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변수들 중에서 연령통제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는 친부 정보의 양과 친모정보의 양이었다.

<표2-1> 친부모정보의 양과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친부정보	집단간	2	35.3081	17.6541	5.1624	.0072
	집단내	109	372.7544	3.4198		
	계	110	408.0625			
	(집단1: .2667, 집단2: .3111, 집단3: 1.4865, 계: .6875)					
친모정보	집단간	2	55.1262	27.5631	4.8036	.0100
	집단내	109	625.4363	5.7379		
	계	111	680.5625			
	(집단1: .7000, 집단2: .4889, 집단3: 2.0541, 계: 1.0625)					

<표2-2> 친부모정보의 양과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수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친부정보	Covariates	.042	1	.042	.013	.911
	연령	.042	1	.042	.013	.911
	Main Effects	47.112	2	23.556	7.049	.001
	뿌리찾기정도	47.112	2	23.556	7.049	.001
	Explained	47.154	3	15.718	4.704	.004
	Residual	360.908	108	3.342		
Total	408.063	111	3.676			
친모정보	Covariates	14.997	1	14.997	2.590	.110
	연령	14.997	1	14.997	2.590	.110
	Main Effects	40.329	2	20.165	3.483	.034
	뿌리찾기정도	40.329	2	20.165	3.483	.034
	Explained	55.326	3	18.442	3.186	.027
	Residual	625.563	108	5.789		
Total	680.563	111	6.131			

본 연구의 결과는 입양당시의 연령이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입양사실의 인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인지시기나 방법이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Sobol & Cardiff(1983), Feigelman & Silverman(1983), Kowall & Schilling(1985), 그리고 Steinberg(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본 연구에서는 입양관련사실들의 공개시기나 방법이 뿌리찾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뒤늦게 제삼자를 통하여 충격적으로 입양을 인지한 경우가 겨우 7명이어서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 친부모 정보양과 뿌리찾기정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서, 친부모정보가 있을수록 뿌리찾기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한 Aumend & Barrett(1984), 그리고 Sobol & Cardiff(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해외입양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인종내 입양인의 경우에는 원래출생증명서가 공개된다면, 언제라고 친부모에 관한 정보획득이나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연구의 대상자들은 친부나 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기아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보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양부모와의 관계와 뿌리찾기의 관계

양부와의 아동기, 사춘기, 그리고 현재 관계의 평균점수는 각각 4.0642, 3.7570, 그리고 4.1524였다. 양모와의 아동기, 사춘기, 그리고 현재 관계의 평균점수는 각각 4.1182, 3.7545, 그리고 4.1852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부 및 양모와의 관계는 사춘기때 그 정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와의 관계와 뿌리찾기의 관계를 보았을때, 뿌리찾기집단별로 아동기와 현재의 양부 및 양모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사춘기때의 양부 및 양모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통제후에는 사춘기때의 양모와의 관계만이 뿌리찾기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사춘기 양모와의 관계와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양모와의 관계	집단간	2	15.3107	7.6553	4.9031	0.0092
	집단내	107	167.0621	1.5613		
	계	109	182.3727			

(집단1: 4.0690, 집단2: 3.9778, 집단3: 3.2222, 계: 3.7545)

<표3-2> 사춘기 양모와의 관계와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연령	집단간	2	588.6259	294.3130	15.9026	.0000
	집단내	109	2017.2937	18.5073		
	Total	111	2605.9196			

(집단1: 21.1333, 집단2: 21.4000, 집단3: 26.1622, 계: 22.9018)

본 연구의 결과 사춘기 양모와의 관계가 세집단 모두 긍정적인 가운데, 이시기의 양모 관계와 뿌리찾기정도와의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Triseliotis(1973), Loper(1976), Raynor(1980, 그리고 Sobol & Cardiff(198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5. 양부모와의 입양대화와 뿌리찾기의 관계

입양대화시의 양부모의 민감도의 평균점수는 3.9189였고, 편안한 정도의 평균점수는 4.1441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양부모와의 입양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뿌리찾기집단간에, 양부모의 민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편안한 정도는 뿌리찾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을 통제하자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부모와의 입양대화 분위기가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본연구 대상자들의 양부모들의 경우에는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입양대화를 회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수 있다.

6. 이웃 또는 사회에서의 입양경험과 뿌리찾기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입양경험을 이웃에서의 경험과 사회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웃에서의 아동기 및 사춘기 입양경험의 평균점수는 각각 3.9091과 4.0182이었고, 사회에서의 아동기 및 사춘기 입양경험의 평균점수는 각각 3.3545와 2.6852였다. 즉 이웃에서의 입양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나, 사회에서의 입양경험은 이웃에서의 경험만큼 긍정적이지 못하며, 특히 사춘기의 사회에서의 입양경험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경험과 뿌리찾기의 관계를 보면, 이웃에서의 아동기 입양경험과 사춘기 입양경험, 그리고 사회에서의 아동기 입양경험과 사춘기 입양경험은 모두 뿌리찾기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 통제후 사회에서의 사춘기 입양경험에서는 뿌리찾기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졌지만, 이웃에서의 아동기 입양경험, 이웃에서의 사춘기 입양경험, 그리고 사회에서의 아동기 입양경험에서는 뿌리찾기 집단간의 차이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4-1> 입양경험과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아동기 이웃	집단간	2	12.7176	6.3588	5.7478	.0043
	집단내	107	118.3734	1.1063		
	계	109	131.0909			
(집단1: 4.3103, 집단2: 4.0227, 집단3: 3.4595, 계: 3.9091)						
사춘기 이웃	집단간	2	11.3126	5.6563	5.4696	.0055
	집단내	107	110.6511	1.0341		
	계	109	121.9636			
(집단1: 4.4828, 집단2: 4.0227, 집단3: 3.6486, 계: 4.0182)						
아동기 사회	집단간	2	29.4143	14.7071	8.3813	.0004
	집단내	107	187.7585	1.7548		
	계	109	217.1727			
(집단1: 3.8966, 집단2: 3.5909, 집단3: 2.6486, 계: 3.3545)						

<표4-2> 입양경험과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수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Ratio	Signif of F
아동기 이웃	Covariates	3.277	1	3.277	2.936	.090
	연령	3.277	1	3.277	2.936	.090
	Main Effects	9.472	2	4.736	4.242	.017
	뿌리찾기정도	9.472	2	4.736	4.242	.017
	Explained	12.749	3	4.250	3.807	.012
	Residual	118.342	106	1.116		
	Total	131.091	109	1.203		
사춘기 이웃	Covariates	3.875	1	3.875	3.726	.056
	연령	3.875	1	3.875	3.726	.056
	Main Effects	7.859	2	3.929	3.779	.026
	뿌리찾기정도	7.859	2	3.929	3.779	.026
	Explained	11.734	3	3.911	3.761	.013
	Residual	110.230	106	1.040		
	Total	121.964	109	1.119		
아동기 사회	Covariates	8.379	1	8.379	4.734	.032
	연령	8.379	1	8.379	4.734	.032
	Main Effects	21.171	2	10.586	5.980	.003
	뿌리찾기정도	21.171	2	10.586	5.980	.003
	Explained	29.550	3	9.850	5.565	.001
	Residual	187.623	106	1.770		
	Total	217.173	109	1.992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웃과의 입양경험보다는 사회와의 입양경험이, 그리고 사춘기의 입양경험보다는 아동기의 입양경험이 뿌리찾기와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입양경험과 뿌리찾기정도 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자들 중에서도 특히 Loper(197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7. 연구대상자의 입양전해 및 입양인식과 뿌리찾기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입양전해중 입양인됨에 대한 평균점수는 3.8091이었고, 해외입양인됨에 대한 평균점수는 3.6449로, 입양된 것과 해외입양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입양인식 중에서 입양인은 다르다는 인식의 평균점수는 3.2432였고, 정체감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의 평균점수는 3.1982로, 입양인식은 중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입양전해는 뿌리찾기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입양인식 즉 입양인은 다름과 정체감형성이 보다 어려움은 연령 통제후에도 뿌리찾기집단간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6-1> 입양인식과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다름	집단간	2	19.9795	9.9898	5.9788	.0034
	집단내	108	180.4529	1.6709		
	계	110	200.4324			
(집단1: 2.5517, 집단2: 3.3778, 집단3: 3.6216, 계: 3.2432)						
정체감 어려움	집단간	2	31.6295	15.8147	10.0464	.0001
	집단내	108	170.0101	1.5742		
	계	110	201.6396			
(집단1: 2.4828, 집단2: 3.1111, 집단3: 3.8649, 계: 3.1982)						

<표6-2> 입양인식과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 수	Source of Variation	Sum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다름	Covariates	3.506	1	3.506	2.081	
	연령	3.506	1	3.506	2.081	.152
						.152
	Main Effects	16.675	2	8.337	4.949	
	뿌리찾기정도	16.675	2	8.337	4.949	.009
						.009
	Explained	20.181	3	6.727	3.993	
	Residual	180.252	107	1.685		.010
	Total	200.432	110	1.822		
정체감 어려움	Covariates	2.390	1	2.390		.221
	연령	2.390	1	2.390	1.514	.221
					1.514	
	Main Effects	30.381	2	15.191		.000
	뿌리찾기정도	30.381	2	15.191	9.625	.000
					9.625	
	Explained	32.772	107	10.924		
	Residual	168.868	110	1.578	6.922	
	Total	201.640		1.833		

본 연구의 결과는 입양인식과 뿌리찾기정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Brodzinsky와 동료(1992)의 관점을 지지한다.

8. 친부모 환상정도와 뿌리찾기의 관계

아동기와 사춘기때의 친부모에 대한 환상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각각 2.4259와 2.5094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70%가 아동기에, 70.3%가 사춘기에 친부모환상을 해본 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환상과 뿌리찾기의 관계를 보면, 아동기와 사춘기의 친부모 환상정도는 연령 통제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5-1> 친부모환상과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아동기	집단간	2	24.8180	12.4090	9.0741	.0002
	집단내	105	143.5894	1.3675		
	계	107	168.4074			
	(집단1: 1.7586, 집단2: 2.3953, 집단3: 3.0000, 계: 2.4259)					
사춘기	집단간	2	36.5040	18.2520	13.2404	.0000
	집단내	103	141.9866	1.3785		
	계	105	178.4906			
	(집단1: 1.5862, 집단2: 2.6977, 집단3: 3.0588, 계: 2.4094)					

<표5-2> 친부모환상과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수	Source of Covariation	Sum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아동기	Covariation	19.485	1	19.485	14.786	.000
	연령	19.485	1	19.485	14.786	.000
	Main Effects	11.865	2	5.932	4.502	.013
	뿌리찾기정도	11.865	2	5.932	4.502	.013
	Explained	31.350	3	10.450	7.930	.000
	Residual	137.057	104	1.318		
Total	168.407	107	1.574			
사춘기	Covariates	7.489	1	7.489	5.400	.022
	연령	7.489	1	7.489	5.400	.022
	Main Effects	29.541	2	14.770	10.650	.000
	뿌리찾기정도	29.541	2	14.770	10.650	.000
	Explained	37.029	3	12.343	8.900	.000
	Residual	141.461	102	1.387		
Total	178.491	105	1.700			

본 연구결과 친부모 환상정도와 뿌리찾기정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환상을 해본적이 있으나, 별로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친부모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Miller-Havens(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9. 뿌리찾기 견해와 뿌리찾기의 관계

뿌리찾기 견해는 연구대상자의 견해와 연구대상자가 보는 양부모의 견해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의 뿌리찾기 견해에 있어서는, 친부모에 관한 정보만 얻는 것으로 만족할수 있는지와 뿌리찾기 시도자는 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보만으로 만족함에 대한 평균점수는 2.9810으로 중도적이었으나, 뿌리찾기 시도자는 보다 불행한 사람에 대한 평균점수는 2.4762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뿌리찾기에 대한 양부모의 견해에 대한 평균점수는 4.0315로, 연구대상자들은 양부모의 뿌리찾기견해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뿌리찾기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뿌리찾기견해중에서 정보만으로 만족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뿌리찾기견해중 뿌리찾기시도자는 보다 불행함과 양부모의 뿌리찾기견해에서는 뿌리찾기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연령 통제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7-1> 뿌리찾기견해와 뿌리찾기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변수	Source	DF	Sum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입양인	집단간	2	12.0978	6.0489	6.0434	.0033
	집단내	102	102.0927	1.0009		
	Total	104	114.1905			
	(집단1: 3.0800, 집단2: 2.3256, 집단3: 2.2432, 계: 2.4762)					
양부모	집단간	2	9.1085	4.5542	4.2905	.0161
	집단내	108	114.6393	1.0615		
	계	110	123.7477			
	(집단1: 4.5862, 집단2: 4.1778, 집단3: 3.8378, 계: 4.1712)					

<표7-2> 뿌리찾기견해와 뿌리찾기에 관한 공분산분석

변 수	Source of Covariation	Sum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입양인	Covariation	2.382	1	2.382	2.370	.127
	연령	2.382	1	2.382	2.370	.127
	Main Effects	10.286	2	5.143	5.116	.008
	뿌리찾기정도	10.286	2	5.143	5.116	.008
	Explained	12.668	3	4.223	4.201	.008
	Residual	101.522	101	1.005		
	Total	114.190	104	1.098		
양부모	Covariates	2.144	1	2.144	2.002	.160
	연령	2.144	1	2.144	2.002	.160
	Main Effects	7.022	2	3.511	3.278	.042
	뿌리찾기정도	7.022	2	3.511	3.278	.042
	Explained	9.165	3	3.055	2.853	.041
	Residual	114.582	107	1.071		
	Total	123.748	110	1.125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양부모의 뿌리찾기견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양부모의 뿌리찾기견해와 입양인의 뿌리찾기사이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입양인 뿌리찾기가 현실적으로 되면, 양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Geissinger(1984)와 Feigelman & Silverman(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10. 연구대상자의 자존심과 뿌리찾기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화한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을 가지

고 연구대상자들의 자존심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존심은 전체 평균이 4.2346으로 상당히 높은편이었으며, 집단별 평균점수는 각각 4.3862, 4.1762, 그리고 4.1806이었다. 집단1의 자존심이 집단2나 집단3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F. 유의도가 0.3582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입양인들의 자존심은 뿌리찾기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의 보편적 욕구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그들이 표현한 뿌리찾기 정도에 따라 뿌리찾기무관심집단(집단1), 관심집단(집단2), 그리고 시도집단(집단3)으로 구분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뿌리찾기시도가 주로 성인기초기에 나타나고 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을 제외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입양당시의 연령이나, 입양관련 사실들의 공개와 방법, 그리고 입양대화분위기는 뿌리찾기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친부모정보의 양, 사춘기 양모와의 관계, 아동기와 사춘기의 이웃에서의 입양경험, 아동기의 사회에서의 입양경험, 입양인식, 아동기와 사춘기의 친부모환상정도, 입양인과 양부모의 뿌리찾기견해와 같은 다양한 입양관련 경험들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1은 평균 연령이 21세이고, 친부모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며, 사춘기의 양모와의 관계나 아동기, 사춘기의 이웃에서의 입양경험, 아동기 사회에서의 입양경험이 매우 긍정적이다. 입양인이 다르다는 입양인식이 낮은 편이며, 아동기와 사춘기에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들의 양부모가 뿌리찾기에 대해 상당히 지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은 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집단3의 평균 연령은 26세이며, 친부와 친모에 대한 정보가 2,3개정도 있다. 이들의 사춘기 양모와의 관계나, 아동기와 사춘기의 이웃에서의 입양경험은 긍정적인 편이기는 하나, 집단1만큼 긍정적이지 못하다. 아동기의 사회에서의 입양경험은 부정적인 편이다. 이들의 입양인식은 상당히 높으며, 아동기와 사춘기에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꾸준히 해왔다. 이들도 양부모가 뿌리찾기에 대해 지지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집단1만큼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는다.

Duncan 방식의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집단1과 집단3은 모든 유의미한 변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집단2는 집단1과 집단3 사이에 위치한다. 그중에서도 연령, 친부모정보의 양, 양모와의 사춘기관계, 이웃에서의 아동기, 사춘기입양경험과 아동기 사회에서의 입양경험에서는 집단1과 유사한 속성을 보여서 집단3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입양인식, 친부모환상, 뿌리찾기견해에서는 집단3과 유사한 차이를 보여서 집단2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집단3은 집단1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입양관련경험들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고 집단 3이 좀더 문제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이 좀더 문제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차이가 없고, 상당히 긍정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부모나 이웃과의 경험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뿌리찾기가 입양인의 보편적 욕구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2. 제언

입양실무에서 입양인의 뿌리찾기가 그들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기 바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입양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점들을 시사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의 보편적 욕구인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통제해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키는 변수들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변수들은 구미의 인종내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차이들의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해보려 노력하였으나,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선행연구와 비교해볼때 뿌리찾기관심도와 뿌리찾기 시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것도 연구 결과에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뿌리찾기 비시도자를 무관심자와 관심자로 구분한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인종간입양과 인종내 입양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만일 그러한 차이가 인종간입양과 인종내 입양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국내입양 실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각변수들의 의미나,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과 뿌리찾기 시도의 이유와 시도의 방법 및 경험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